상록탑

대학생들의 새로운 탈출구

김송이
대학취재부 부장

> 현실에서 벗어나 '탈출' 하기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방 탈출 카페다. 지난해 강남역 근처에 처음 생긴 방 탈출 카페는 불과 1년 사이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본교 앞에도 올해 한 곳이 문을 열었고, 신촌에만 4~5개의 방 탈출 카페가 있다. 방 탈출 카페는 2~4명이 한 팀을 이뤄 제한된 60분 안에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촌 곳곳에 생긴 방 탈출 카페를 지나가다 우연히 보고, 호기심에 직접 찾아가봤다. 가게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인당 1만원 후반에서 2만원 초반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시간 당 이용요금이 영화 비용에 두 세배로, 대학생들에게 그리 저렴하진 않은 가격이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왜 방 탈출 카페에 열광하는 것일까?

'헬 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대학생들은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업률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취업, 연애 등 현실 문제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대학생들의 비율도 높아져간다. 이를 반증하듯 흡연, 술, 게임 등에 중독되는 대학생의 수도 높아져가고, SNS를 중심으로 '스트레스 해소법'이 퍼지고 있기도 하다.

방 탈출 카페는 어느 하나에 중독돼 현실을 외면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나마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장소다. 제한시간 내 방 안 곳곳 숨겨있는 힌트를 찾아 문제를 풀다보면, 잠시나마 현실의 문제들을 잊게 된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씩 풀다보면 무언가를 해결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방 탈출 카페에 5번 정도 갔다는 A씨는 "대학원 학위를 위해 논문을 쓰다보면 스트레스가 많아 초콜렛 등의 군것질을 많이 하곤 했다"며 "방 탈출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난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의 '탈출구'로서 방 탈출 게임을 즐긴다는 것은 게임을 푼 경우에만 해당한다. 방 탈출 카페는 적게는 4개, 많게는 8개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있고, 난이도도 상이하다. 인기있는 테마는 컨셉으로 이뤄진 테마로 난이도가 상에 해당된다. 그만큼 미션을 성공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한 시간 내내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미션을 성공하지 못할 때 다가오는 좌절감도 크다.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어 방 탈출 게임을 하게 된 것인데, 그 곳에서도 탈출하지 못하면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탈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은 현실에서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일 때에는 목표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대학에 가서는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해서. 또, 결혼해서는 좋은 집을 구하지 못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실패'는 무수히 많고, 우리는 그럴수록 현실의 '탈출구'를 찾게 된다. 방 탈출 카페는 음주, 흡연 등의 '탈출구'에서 변형된 새로운 우리의 '탈출구'인 것이다.

학생 칼럼

캠퍼스내 흡연구역 지정의 필요성

최예지
경제·15

>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배려하는 방법

수업시간 강의실을 향해 뛰어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매캐한 담배냄새에 숨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곳엔 학내 시설 관계자, 나의 벗, 나의 교수님이 있다. 담배 냄새에 민감한 벗들은 손으로 입을 막고, 그들을 가볍게 흘겨보기도 하며 서로가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제 기호식품이라 불리는 담배는, 비흡연자들도 그들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하루에 몇 번씩 간접흡연에 노출되도록 한다. 대학교를 학업의 장으로, 또한 일터로 삼고 있는 많은 이들은 흡연자이거나, 비흡연자이다. 흡연은 선택이며, 그들의 자유이기도 하다. 또한 권리이기도 한데, 흡연이라는 행위는 그 영향력이 본인뿐만이 아닌 그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타인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또한 그 영향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여 실내 흡연을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서, 일부 건물 밖에 따로 흡연실이 마련되거나, 외부의 몇몇 곳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었다. 중앙대, 경희대, 고려대 등 대학 캠퍼스도 건물 내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외부에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거나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이다.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막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흡연구역을 늘려야 한다. 이는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며 흡연구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곳은 금연구역임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떤 일을 제지하는 데에는 강하게 억압하고 책임을 묻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양측의 양해를 통해 균형점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다. 대학 캠퍼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해 놓지 않는 것이 전자이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부스 설치나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해놓는 것은 후자라고 볼 수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 전자에 속한다. 교내 숲이나 건물 뒤 으슥한 곳에 재떨이를 가장한 쓰레기통이 놓여져 있고, 그 주변엔 금연 스티커가 붙어져 있지만 다른 곳은 사방이 뚫려 있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부담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그 곳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아이러니한 곳이 몇 군데에 있을 뿐이다. 실제로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이들을 담배의 구입이 가능한 성인으로 가정한다)이 하루 종일 흡연 욕구를 억제하기를 기대하며 흡연구역을 따로 마련해두지 않은 것은 흡연은 합법으로 하되, 금연구역은 점점 늘어나고 흡연구역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린 현실만큼이나 아이러니하다.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흡연자만을 위한 대책이 아니며, 흡연을 권장하는 일 또한 아니다. 앞서 말한 흡연의 특성 때문에 흡연에 의한 영향력은 오로지 본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어야 하며,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경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비흡연자가 담배연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그렇기에 흡연 장소를 분리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는 흡연자를 위한 배려임과 동시에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담배의 구입과 구매가 합법인 이상 흡연자를 몰아세우는 일은 한계가 있으며,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다. 금연은 개인에게 맡기고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때가 왔다. 흡연구역을 설치하여 이곳이 흡연구역임을 명시하고, 명시된 장소 이외의 곳은 금연구역임을 알려야 한다. 모두의 권리와 자유가 동시에 실현되는 캠퍼스가 되길 바란다.

여론광장

이화에 찾아온 이들 모두 소중한 시간 보내기를

"역대 최다인원 방문 ··· 외국인 교환·방문학생 환영식 개최"

이것은 지난 9월5일자 학보에 올라온 한 기사의 제목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번 2016년 가을 이화를 찾은 교환 및 방문 학생의 숫자는 507명으로, 본교 학부나 대학원에 정규학생으로 등록한 유학생 수를 제외하고 저 정도이니, 올 가을을 우리 교정에서 보내는 국제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쩐지 이번 학기 학교에서 오며가며 마주친 외국인 학생이 부쩍 늘어난 것도 같다.

차설, 내가 지난 해 교환학생으로서 1년을 보냈던 미국 앤젤로 주립대학교(Angelo State University)는 텍사스 주의 아주 시골 동네의 작은 대학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숫자의 교환학생들이 들어와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가장 큰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학교가 작으니 얼마 없는 전공에 수업도 많이 열리지 않았다. 적은 자리를 두고 ASU 정규 학생들과 나눠 가져야 하니, 개강 첫 주면 수강신청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또 많은 국제학생을 유인하기 위하여 어학성적과 GPA 기준을 낮게 잡아 둔 탓에 미국까지 와서 말 한 마디 똑바로 하지 못 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성악과 3학년 전공 수업에는 중국에서 온 한 학생이 있다. 어쩌다보니 내 옆자리에 앉은 이 친구는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중국어, 아주 짧은 한국어, 그보다 더 짧은 영어 실력을 가진 게 전부다. 어쩌다 이 수업을 신청했는지, 어쩌다 이화로 오게 되었는지,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기도 한데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 참으로 할 말이 없다.

국내 대학 중 손꼽히는 국제교류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 이화가 이 많은 국제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파견교가 되기를 바란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이 먼 곳을 찾은 어린 학생들이 ASU에서와 같은 고초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비용까지 들였을 텐데, 그만큼 즐거워야하지 않겠나. 이들 모두 진정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차가영(성악·12)

사설

'오비이락' 해명, 불신 해소하기 어렵다

본교는 9월2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교문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슈가 돼, 끊임없이 정치권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시작은 야당이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라고 주장하는 최순실 씨의 딸 정모 씨가 본교 체육과학부 입학 과정과 학점 취득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야당 교문위원들은 국감 중 현장조사 명목으로 본교를 방문해 최 총장과의 긴급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간담회 이후 본교는 이화 브리핑을 통해 본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하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9월29일 발표된 이화 브리핑에서 정 씨와 관련한 학칙 개정부터 지도교수 교체까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공지했다. 또한, 본교 입학처장은 입학 특혜 논란에 "특정인 특혜 입학에 대해선 추호의 의혹도 없으며 본교 입학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본교의 해명은 학교 안팎으로 크게 신뢰를 주고 있지는 못하는 듯하다. 본교는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표현했다고 알려졌지만, 이런 의혹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올해 4, 5월 사이 본교를 찾았다. 본교는 최 씨의 방문 사실 여부에 대해선 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2달 뒤인 6월에 학칙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개정된 학칙 중 우연히도 정 씨에게 필요한 학칙이 3월부터 소급 적용됐다. 이처럼 하필이면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정황들이 미심쩍다는 게 적잖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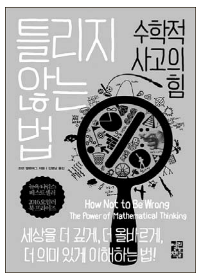
학교를 믿고 지지해야 마땅할 학생들조차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데에는 본교에 대한 '불신'이 자리한다. 두 달 넘게 본관 점거농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는 아직까지 학생들이 가지는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불신의 벽을 높이지 않으려면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상세 자료를 더욱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입학, 학점 취득과 관련한 의혹은 학생들에게 무력감과 패배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정부의 비리 스캔들에 이화라는 이름이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는 이화의 구성원들이 많다. 이화를 사랑하는 모든 재학생, 교직원, 동문들에게 이화는 '융통성이 없더라도 원칙은 지키는 학교' '강자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고고한 정신을 유지하는 학교' '부정부패 없이 투명하게 운용하는 학교'였다. 그런 학교가 비리 의혹으로 국민들의 눈총을 받는 상황은 낯부끄러울 따름이다. 학교가 학내외로 신뢰를 회복해서 모든 이화 가족이 이화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만평

김재은 만평기자 wodms9508@naver.com

금주의 책



틀리지 않는 법 조던 엘렌버그 저, 김명남 옮김. 파주:열린책들 2016.

이 책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리는 판단과 추론 과정에서 흔히 범하는 논리적 오류들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며 작가 특유의 유쾌함으로 올바른 추론의 방법을 재치 있게 제시해줍니다. 경영, 스포츠, 종교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논제를 실제 사례 또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이라 여겼던 결론이 왜 오류를 범했는지 사고 속의 함정은 무엇이었는지를 명쾌하게 짚어주며 수학 이론을 덧붙여 수학은 더 이상 학문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이 아니라 친근하며 삶에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코 가벼운 내용의 책이 아님에도 누구나 읽기에 쉽고 유쾌한 이 책을 통해 이화인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 견고하고 논리적인 판단과 추론을 이끌어내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화여대 중앙도서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금주의 책'은 "도서관 BEST 대출도서"에서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홀 인기도서 / 5층 일반자료실 510 EL54h한]

0831~0929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구르미 그린 달빛 : 윤이수 장편소설	윤이수	열림원	2015
2	(캠벨) 생명과학 포커스	Urry, Lisa A. Campbell, Neil A., 전상학	바이오사이언스 출판	2014
3	버림 받은 황비 : 정유나 장편소설	정유나	D&C books : 디앤씨미디어	2013-2015
4	1Q84 :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소설	촌상춘수	문학동네	2009-2010
5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Rowling, J. K.	문학수첩	2003
6	폴라리스 랩소디 : 이영도 판타지 장편소설	이영도	황금가지	2000-2001
7	미생 :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2012-2013